

# 호스피스 사례발표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여의도 소재) —

## 의사

### ▶ Chief complaint

- ID : 16379394
- Name : 황 O O
- Sex/Age : M/66
- Adm. Date : 2008.11.18

- Dyspnea
- Onset: admission 4일전

### ▶ Present illness

상기 66세 남자환자는 2007년 2월, 한 달간 지속되는 dysphagia 및 melena있어 바오로병원에서 GFS 시행하였고 하부식도에서 mass관찰되어 생검한 결과 SqCCa,로 진단받아 본원으로 전원, PET CT에서 metastatic LAP발견되어(T4N3M1) incurable dis.로 판정, dysphagia와 pain control위한 palliative Tx.(07.3.24 FP#1 CTx~2007.7.19 FP#6(75%), 07.10.19 DP#1~08.2.12DP#5) 받던 중 08.5월에 brain meta가 추가진단되어 whole brain RTx.시행하였고 내원 4일전부터 서서히 시작된 dyspnea로 OPD경유하여 입원함.

### ▶ History

- Past History
  - : DM/HTN/Tbc/Hepatitis (-/+, 현재 no medi/-/-)
  - : CAD(04' PCI시행), A. fib(바오로병원 t/u)
- Family History : N-S

- Social History : Smoking : N-S  
Alcohol : N-S
- Medication History : 본원 medication
- Allergy :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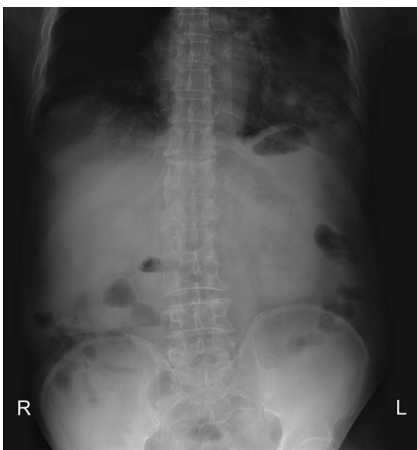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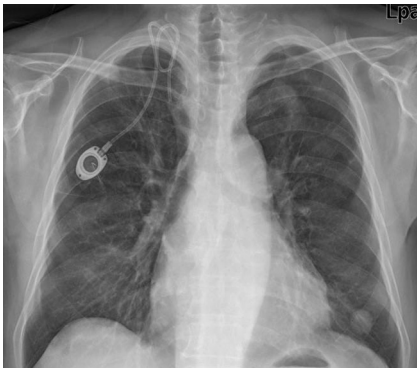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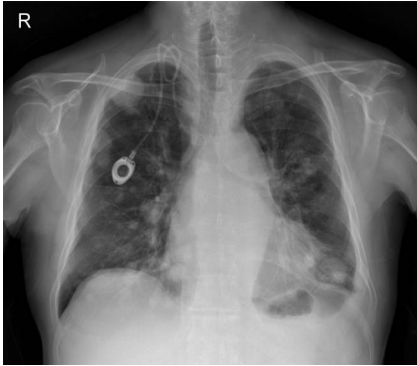
### ▶ Review of system

- Fever/ chill (-/-)
- Nausea/vomiting/diarrhea/constipation (-/-/-/-)
- Dyspnea/cough/sputum/rhinorrhea(+/+/+/-)
- Chest pain/palpitation/orthopnea(+/-/-)
- Poor oral intake(-)
- Abdominal pain(-)

### ▶ Physical examination

- V/S : 120/90-100-20-36.5
- M/S : alert
- G/A : chronic ill-looking appearance
- HEENT : nonanemic conjunctivae  
anicteric sclerae
- Chest : coarse breathing sound c rale, wheezing  
regular heart beat s murmur
- Abdomen : soft & distension  
hyperactive bowel sound  
tenderness/rebound tenderness (-/-)  
no palpable mass
- Extremity : no pitting edema

▶ Radiologic fi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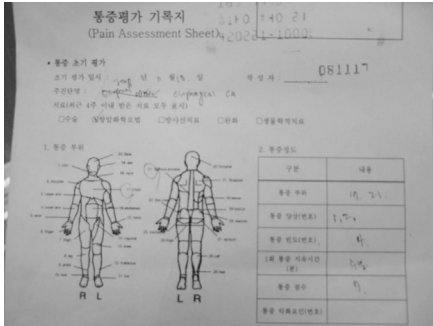
▶ Lab finding

| Routine C.B.C    |         |
|------------------|---------|
| W.B.C count      | 9750    |
| R.B.C count      | 295000  |
| Hemoglobin       | 9.7     |
| Hematocrit       | 27.9    |
| Platelet count   | 133000  |
| W.B.C Diff count |         |
| Seg. Neutro      | 79.3%   |
| Lymphocytes      | 11.2%   |
| Monocytes        | 8.7%    |
| Eosinophils      | 0.7%    |
| Basophils        | 0.1%    |
| E.S.R            | 120mm/h |

| ABGA               |       |
|--------------------|-------|
| pH                 | 7.527 |
| PaCO <sub>2</sub>  | 22.1  |
| PaHCO <sub>3</sub> | 18.0  |
| PaO <sub>2</sub>   | 77    |

| BC                |        |
|-------------------|--------|
| Urea nitrogen     | 23.2   |
| Creatinine        | 1.66   |
| Protein, total    | 6.68   |
| Albumin           | 3.19   |
| Bilirubin, direct | 0.48   |
| Bilirubin, total  | 1.40   |
| AST               | 45     |
| ALT               | 36     |
| Uric acid         | 5.9    |
| Calcium           | 8.5    |
| Sodium            | 130    |
| Potassium         | 4.8    |
| C.P.K             | 48     |
| CRP               | 218.84 |
| ALP               | 542    |
| r-GTP             | 993    |
| LDH               | 3348   |

▶ Initial 통증평가 기록지



▶ Positive finding

- Dyspnea/Cough/Sputum(+/+/+)
- Chest wall pain(+)
- Chest X-ray : nodule size/number 증가
- ABGA : respiratory alkalosis

▶ Problem list & Plan

- Chest wall pain & dyspnea d/t esophageal ca.
  - radiologic study w/u
  - pain evaluation & control
- R/O Pneumonia
  - Blood culture
  - Antibiotics

▶ Progress note

- HD#1(2008,11,18)
- S)“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요”
- O)통증부위 : chest, spinous process
  - 통증양상 : 쑤시고 결림
  - 통증빈도 : 서서히
  - 통증점수 : 7점

· P)Pain control : N-OXY1 2T #2

- HD#2~6(2008,11,19~23)
- 통증부위 : chest, spinous process
- 통증양상 : 쑤시고 결림
- 통증빈도 : 서서히
- 통증점수 : 7점
- 중재 : N-OXY1 2T #2
- 중재 후 반응 : 2점

· HD#7(2008,11,24)

- S)none
- O)Chest CT finding :esophageal lumen은 좀 더 obliteration됨( 6.4x3.6cm→8.4 x4.6 cm). 결과적으로 proximal esophagus의 dilatation과 fluid loading이 보임.
- P)Palliative ERT on subcarina and both hilar mass(2008,11,25~12,6)

· HD#8~17(2008,11,25~12,4)

- 통증부위 : chest, spinous process
- 통증양상 : 쑤시고 결림
- 빈도 : 서서히
- 통증점수 : 6~7점
- 중재 : N-OXY1 2T #2, N-FTP 1EA
- 중재 후 점수 : 1~2점

· HD#18~20(2008,12,5~7)

- S)괜찮아요
- O)통증부위 : chest, spinous process
  - 통증양상 : 쑤시고 결림
  - 빈도 : 서서히
  - 통증점수 : 0~1점
  - 중재 : N-OXY2 2T #2, N-FTP 1EA
  - 중재 후 점수 : 1점
- P)연고지 문제로 성바오로병원으로 전원

▶ Current problem list

· Tremor, confusion 등 brain meta, Aggravation의

소견보임

· Immobilization으로 인한 sore발생가능성

간 호 사

▶ 일반정보

- 이름 : 황OO(M/66)
- 진단명 : esophageal ca  
c brain, lung, liver meta
- 과거력 : CAD(06.12 PTCA)  
DM/HBP/TBc/hepatitis(-/-/-)
- 가족관계 : 1남 2녀
- 종교 : 무교

1. 통증을 말로 표현하도록 한다.
2. 매 근무시마다 numerical rating scale을 통하여 통증사정한다.
3. 진통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한다.
4. 비약물적인 통증완화법 사용한다.  
(심상요법, 이완요법, 마사지, 기분전환)
5. 치료적인 접촉을 한다.
6. 통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 치료경과 및 입원경위

- 2007년 esophageal ca Dx
- 2007년 3월~ 2008년 9월  
☞ FP 6th, DP 5th, EP 2th, FEP 2th
- 2008년 5월 whole brain RT 총10회
- 2008년 11월 18일 dyspnea와 chest pain을 주호 소로 입원함  
☞ subcarina+both hilar mass RT증임

▶ 간호문제 2

· 비효율적 호흡양상

- 증상 : exertional dyspnea, coughing호소
- 치료
  1. O<sub>2</sub> 2L/min c nasal prong apply
  2. BPP, N-CODT, COFS PO medication투여
  3. combined pneumonia로 W-TZ4V 3V#3 투여

· 비효율적 호흡양상

- 간호중재
  1. 호흡양상을 사정한다.
  2. 반좌위를 취해준다.
  3. 안정을 취하도록 격려한다.
  4. ABGA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PO<sub>2</sub>/PCO<sub>2</sub> 106.3/20.3)

▶ 간호문제 1

- 통증
  - 증상 : 수분간 서서히 진행되는 쑤시고 걸리는 가슴통증
  - 치료
    1. N-OXY1 2T#2 PO
    2. N-FTP 1제 적용

▶ 간호문제 3

· 잠재성 피부통합성 장애

- 증상 : 침상안정과 보행능력 부족으로 bed

- 통증
  - 간호중재

ridden상태이며, diarrhea로 인해 피부가 습한 상태임

- 치료 : diarrhea교정을 위해 SMTP 3P#3 PO중입

· **잠재성 피부통합성 장애**

- 간호중재

1. 하루에 한번 Braden scale을 통하여 욕창점수를 사정한다.
2. 매 근무시마다 position change를 시행하며,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3. 습한 피부는 건조될 수 있도록 open해두도록 한다.
4. 옷이나 침구가 구김살 없도록 한다.

▶ **간호문제 4**

· **영양결핍**

- 증상 : 식욕부진으로 poor oral intake  
(하루 oral intake 1000g이 되지 않음)

- 치료

1. KABP15 30cc/hrs로 투여중입
2. H-MGS 20ml#1 PO중입

· **영양결핍**

- 간호중재

1. I/O 측정을 통해 영양상태를 사정한다.
2. 소량씩 자주 식사하도록 격려한다.
3. 필요시 구강간호 제공한다.
4. 고단백식이 격려한다. (Alb 2.7~2.9)
5.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간호문제 5**

· **비효율적 대처**

- 증상 : 걱정, 근심, 두려움  
치료나 면담의 거부, 불면  
(지지체계부족)

· **비효율적 대처**

- 간호중재

1. 환자 및 보호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
2. 치료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3. 환자나 보호자의 말을 경청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4. 관심있는 태도로 환자를 대한다.

**사회사업팀**

▶ **Identifying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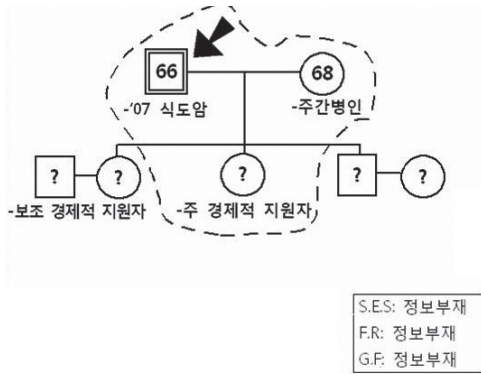
|                   |                           |           |           |
|-------------------|---------------------------|-----------|-----------|
| Name (sex/age)    | 황○○ (M/66)                | Diagnosis | 식도암 및 전이  |
| medical insurance | 지역보험                      | Address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Adm. Duration     | 2008. 11. 18~12. 08 (21일) |           |           |

▶ **Informants**

| X-ships | Sex | Age | Occupation | Attitude | Date                     |
|---------|-----|-----|------------|----------|--------------------------|
| 아내      | F   | ?   | -          | 비협조적     | 2008.12.04<br>2008.12.05 |

Remarks : 주치의로부터 사회사업팀 상담을 안내 받았을 시 거절하는 모습 관찰되었으며 (By. R1김경희), 담당사회사업가의 병실 방문에 비협조적인 모습이었음.

▶ 가족구성도



▶ 진행내용

· 2008년 12월 3일 수요일

[PM 4:00 병실방문, 환자 및 아내 면담]

- 본팀의 역할에 대하여 정보제공하고 추후 상담시간 정함.

[PM 4:50 주치의 협의-RI검경희]

- 환자 보호자에게 본팀 상담에 대하여 안내하였지만, 지속적인 거부 반응 관찰됨에 따라 본팀 정보제공함.

· 2008년 12월 4일 목요일

[PM 3:30 병실방문, 환자아내상담]

“아무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Social study

[의료적인 상황]

- '07년 초기 발병하여 지속적인 치료받았으며 금번 입원시 상태 급격히 악화되어 성바오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본원으로 전원됨. 금일 7차 방사능치료 받았으며 다음주 월요일 전원할 계획임.

- 아내는 주치의로부터 '기망이 없다'라는 소견을 들음.

[가족관계]

- 슬하 1남 2녀으로 둘째딸과 동거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

- 금번 입원진료비는 이번에 결혼한 막내아들 외 자녀들의 지원으로 마련할 계획임.

[간병의 어려움]

- 환자는 평소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아내가 간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음.

☞ 환자 및 보호자 필요시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본원 사회사업팀의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함.

·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PM 2:30 병실방문, 환자아내상담]

- 비협조적인 태도로 상담의 진행이 어려웠으며, 향후 전원되어 필요시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성바오로병원의 사회사업팀에 대하여 정보제공함.

▶ 한계점

1. 호스피스 팀접근 시 사회사업팀의 개입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욕구 부재
2. 전원을 앞둔 환자 및 보호자의 심리

원목자

황○○(76세)

〈원목자와의 첫 만남〉

11월 21일 편안하게 자는 모습으로 첫 만남을 하였다. 기도만하고 나옴.

\* 그 이후 방문시 느낄 수 있던 것은

거의 잠만 편안하게 주무시고 보호자도 저를 보자 말이 없고 왜 왔냐는 표정이어서 무언의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만남이었다.

- 신자도 아니고 보호자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므로 저의 적극적인 방문이 환자에게 많은 불편함이 될 수 있으므로 자주 병실을 가되 황○○ 환자 중심이 아닌 멀리서 다른 환자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여 저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 11월 28일 금요일

창가에 침실이 있어서 앞에서부터 다른 환자 한 사람 한사람 대화하고 기도해 주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함.

그 날은 주무시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가 원목자를 보자 눈을 감고 있었고 보호자가 그 옆에서 머리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보호자 옆으로 다가가서 어머니 오늘은 아버지 좀 어떠세요 라고 말하자?

그냥 그래요 라고 답하며 아무 답이 없었다.

반기는 표정도 아니고 짧은 대답에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음을 느끼고 방문을 마무리함.

▶ 11월 29일 토요일

보호자와 환자는 반가워하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만나서 그런지 아주 반갑게 무반응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있을 때 환자의 큰딸 가족들이 방문함.

예쁜 외손녀 딸 둘이 할아버지 하고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눈만 깜빡 깜빡이며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 속에 놀라며 찾아온 가족들을 위해 인사만 하고 감.

오후에 다시 방문

환자는 자고 있었고 보호자는 세면실에서 손을 씻고 있어서 다가감.

“어머니 아버지 많이 편찮으신가봐요 아까 외손녀가 왔는데도 웃지도 않고 무표정이었어요. 저 양반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저 양반 마음으로 많이 힘들고 삭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때부터 어머니의 힘든 마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청량리에서 한의원을 하시던 중 3년 전에 시동생 사업자금을 부인 몰래 대주다가 부도가 나고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며 쇼크로 쓰러지고 그 이후로 병이 나기 시작함.

청량리 바오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이곳을 소개시켜 주어서 혹시나 했는데 가망 없다는 것을 알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남편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큰 아들로서 93세 된 노모님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힘듦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힘든 부분을 말하는데도 어머니는 전혀 눈물을 보이지 않는 강한 분이였다.



**원목자의 조치 :** (손을 꼬옥 잡아주면서) 모든 것을 삭이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아버님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마음으로 함께 하며 두 분의 강직하고 평소 말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또 사람을 살갑게 맞이하기 보단 그냥 지켜보며 필요하면 말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전혀 말을 하지 않는 분으로 느껴졌다.

### ▶ 12월 2일

매일 방문해도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기분이 나아보이며 부인이 다리를 짚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등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때였다.

반갑게 인사하며 “저희 봉사자들이 이런 마사지를 해 드려도 될까요?”라고 하자 남편은 대답이 없지만 부인은 “저도 남편도 싫어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됩니다.” 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민감한 반응에 저의 방문도 거부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종교적인 배경을 묻자 지금은 못 다니고 예전에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절에 다녔다고 해서 부처님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청하자 평소 말이 없던 환자가 처음으로 저에게 한 말 한 마디는 눈을 감으며 짧고 굵게 “예”라고 대답했다.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다 같으신 우주의 주인시고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다를 뿐이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부처님이 하시고 죽음은 두려움도 아니고 세상의 고뇌를 끊고 부처님과 함께 하는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삶 안에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고 걱정을 껴 안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또는 하느님께 다 맡기고 마음 비우고

사는 삶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원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 세상에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저도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불자들은 부처님께 불경드리며 부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기운을 내시고 부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마음으로 노력하시는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도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할 때 중간 중간 환자의 반응은 눈을 꼬옥 감은 채 “예” “예” 라고 짧은 대답에 경청하는 것이 느껴졌고 “예” 라는 말은 환자의 아픈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듯 했다.

### ▶ 12월 4일

보호자는 없고 환자는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아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소리내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와 같은 짧은 예. 예라는 말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환자가 저의 기도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아 환자의 손을 더 꼬옥 잡아주었다.

감사했다. 그동안의 방문이 헛되진 않고 조금이나마 환자와의 만남이 깊어짐을 내 기도 소리를 듣고 환자가 믿는 부처님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짐을 부처님께 가는 죽음의 여정 속에 마음의 짐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조금씩 열림이. 눈은 감고 있지만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음이 감사했다.

### ▶ 12월 5일

오늘도 두분이 무표정이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내 손을 잡으며 수녀님 고마워요. 라고 말해서 적극적인 보호자 반응에 놀라며 더 몸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였다. 우리 일요일에 퇴원해서 청량리 바로 병원으로 옮길 거라고 말했다. 별로



말이 없던 보호자가 그런 반응을 보여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그동안의 방문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자에게나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환자에게 다가가 바오로 병원 저희 수녀님들이 운영하던 병원임을 알리고 아버님 가시면 잘 해드리라고 전화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여지없이 눈을 감고 예라고 표현했다.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환자의 최고의 표현은 “예”라는 것 알 수 있었고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 돌봄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상태인데 무척이나 서운하게 느껴졌다.

### ▶ 12월 6일 토요일

예전에는 보호자가 의자에 앉아서 절 쳐다만 보았는데 오늘은 일어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반기는 모습에 감사했고 제가 내일은 주일이라서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아버님 위해 기도하고 얼굴 뵙고 가고 싶어서 왔다는 말을 하고 기도해드린다고 하자 평소 기도할 때 탄 것만 하던 보호자였는데 오늘은 남편 옆에 서서 기도 중에 함께 하는 것을 느끼며 변화되는 보호자의 모습에 감사했고 주무시고

있는 아버님에게 마음 속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모든 것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깨끗한 영혼으로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 〈총평〉

이 환자는 식도암이기에 말하는 것이 점점 힘들 수 있었고 또 평소 두분은 침착하고 차분하며 평소 말이 없는 분으로 느껴졌다.

환자를 위해서는 바오로 병원 호스피스로 이전하는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병원을 옮기지 않고 앞으로의 만남을 가진다면 더 깊은 만남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하다고 표현하는 노모를 남기고 떠나는 아픔, 부인 몰래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미안한 마음을 끌어 안고 죽음을 향해 가는 환자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고 용서받고 용서해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영적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하느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성바로 병원 수녀님께 환자에 대한 전화통화를 할 계획입니다.

## 자원봉사자

### ▶ 환자의 인적사항

호실 : 1117호

성명 : 황○○

성별/나이 : 남 / 66

직업 : 한의사

병명 : 식도암 (뇌, 폐 전이)

주치의 : 유인숙 교수

종교 : 불교

가족사항 : 부인, 3남매

입원일/퇴원일(사망일) : 2008.05.01 / 2008.12.08

### ▶ 입원 경위 : 응급실

▶ **치료과정**

임상검사 : MRI, CT, 방사선, X-ray,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요법 : 했음  
 먹는 약 : 복용 중

▶ **면담에 대한 분석**

- 환자의 심리, 정서적 측면  
: 처음엔 도움 받을 것이 없다며 확 돌아눕는 등 호스피스를 거부했음.
- 환자의 신체적 측면  
: 복수 차있고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 호소함. 온몸이 쭈시고 결림.
- 환자의 사회, 경제적 측면  
: 본인이 한의사였으므로 가정 사정은 넉넉했음.
- 환자의 영적(신앙적) 측면  
: 불교신자였으나 신앙이 깊지 않았음.

▶ **면담내용**

**1회)** 첫 번째 방문 (05.01)

침대에 앉아 계시는데 얼굴은 좋아보였습니다. 보호자 부인은 안 계시고 혼자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다 결혼하고 스스로 잘 알아서 산다며 이제 우리 부부만 건강하면 되는데 내가 아파 걱정이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

**4회)** 아침, 저녁에 방문했으나 계속 누워 잠만 주무셨습니다.

**5회)** 보호자는 안 계시고 환자분은 우리를 보더니 확 돌아 누으셨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지 귀찮다는 듯 바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봉사자들은 발 저만치에서 기도만 하고 나왔습니다.

**7회)** 오전에 주무시고 계시기에 오후에 올라가보니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특별히 불편해 보이진 않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눌해서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을까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스피스에게 도움 받을 것이 없다며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8회)** 침대에 누워 계셔서 인사를 하고 “발마사지를 해드릴까요?”하고 물으니 싫다고 거부하셨습니다. 침상정리를 해드리고 편안하게 쉬시라고 말씀드리니 고개만 끄덕하셨습니다.

**9회)** 오후에 재방문하니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있는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방문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회)** 마음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처음엔 발마사지를 거부하셨는데 오늘은 좋다고 해달라고 하시며 계속 눈을 감고 마사지를 받으셨습니다.

**11회)** 병실이 답답하다고 해서 5층 공원을 안내하며 산책했습니다.

시원하다고 하며 밝은 모습이었고 작은 것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12회)** 본인은 불교를 믿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열심히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팔목에는 염주를 하고 있었고 친척들은 천주교에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회)** 늘 편안한 모습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자녀 3명이 출가하여 7명의 손자, 손녀가 있는데

특별히 마음 가는 아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으며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15회)** 오전엔 주무시고 계셨고 오후에 방문했을 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등마사지와 발마사지를 해드리니 너무 고마워 하셨습니다.

**16회)** 변함없는 미소를 머금고 앉아계셨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으신 듯 TV를 시청하고 계셨고 찾아주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회)** 화장실에 혼자 다녀왔는데 힘이 들었고 다리가 떨려서 조심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예전 같지 않고 알아듣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몸이 쭈신다고 몹시 아파하셨습니다.

**19회)** 언제나 오전에는 주무셨고 오후에는 간호사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신 뒤 검사를 받으러 가신다고 하여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

**20회)**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신다길래 아래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23회)** 환자분이 배변을 하고 싶다고 하시어 부인과 함께 변기를 침상 위에 준비해 드렸고 그 후에 다리에 부종이 심해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배에 복수가 많이 차 있어 크게 운동을 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간호를 교대해 줄 사람이 없어 부인 혼자 하다 보니 많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도와드릴테니 밖에 나가 바람도 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쉬다가 오세요.” 라며 내보내드렸습니다.

**25회)** 따님 부부가 다녀가셨고 처형이 방문하셨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주무시고 계셔서 자는 모습만 보고 대화는 못하고 가셨습니다.

**27회)** 환자분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오셔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계셨고 보호자는 급한 일이 있다기에 우리가 환자분을 잘 돌보고 있을테니 일을 보고 오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주무시다가 전화벨이 울리니 깜짝 놀라 깨셨습니다.  
저희가 팔, 다리를 마사지 해 드리니 다시 주무셨습니다.

**28회)** 병실에 가니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퇴원하고 안 계셨습니다.

### ▶ 호스피스 활동 시 느낀 점

인생이 그렇듯이 어렵고 힘든 시간 다 보내 부도 쌓고 아이들도 다 결혼시켜 이제 노부부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 했을 때 예상치도 못 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와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호스피스 방문을 거부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도와주려는 우리를 결국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 이런저런 속내를 이야기 하시며 발 마사지, 등 마사지를 받으시고 산책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보아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습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70세가 넘는다는데 일찍 가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안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